서울 전역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 특별단속

적발된 학원 벌점·과태료 부과

서울시교육청은 9월 7일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학원의 과대·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사업자 등이 거짓·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교육부와 MOU를 체결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들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여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학원 45개소를 적발하고, 해당학원 명단을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 34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통보 받은 학원 45개소에 대해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해 37개의 학원에서 허위·과장 광고 행위, 강사 채용·해임 절차 위반, 시설·설비 등록 절차 위반, 안전보험 가입기준 미달, 교습비 게시 위반, 강사 인적 사항 게시 위반 등의 불법 운영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학원들은 주로 원격교육학원, 입시미술학원, 직업기술학원, 공무원학원들이며, 허위·과장 광고 행위, 시설·설비 무단 변경 2회, 강사 인적 사항 허위 게시 2회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동작구의 A고시학원에 대해서는 14일 동안 교습정지 처분을 하고, 34개의 학원에 대해 위법 운영 정도에 따라 5~3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2개의 학원에 대하여는 위법 운영 정도에 따라 15~30점의 벌점과 함께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적발된 학원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하여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학원의 위법 운영 행위에 대한 벌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도록 되어 있고,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가중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법운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논술첨삭, 자기소개서 컨설팅 무료로 받으세요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사이버논술교실 연중 운영

서울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민철)은 대입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논술 첨삭과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논술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꿀맛닷컴'에서 운영되는 '사이버논술교실'에서는 역량 있는 교사들이 자기소개서 컨설팅, 대입논술 문제 출제 및 무료 첨삭 지도, 기초 논술 지도 및 무료 첨삭 지도 등을 실시 중이다. 초·중·고 EBS 최신 논술 강의 동영상, 인문계·자연계 논술 유형, 논술전형 대학 기출 문제, 답안 작성 사례 등의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이버논술교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급논술 등의 메뉴를 추가하고, 컨설팅 지원단 교사 수를 늘려 컨설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논술 첨삭 교사 자동할당제나 컨설팅 완료 알림 서비스도 강화했다.

사이버논술교실의 논술 첨삭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꿀맛닷컴 홈페이지(http://www.kkulmat.com), 또는 사이버논술교실 홈페이지(nonsul.kkulmat.com)에 접속, 로그인(꿀맛닷컴 ID 및 비밀번호 사용)한 후, 우측 상단 '고등학교' 메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은 질 높은 논술 첨삭 지도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학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로·진학 관련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여 공교육 만족도와 신뢰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 중심 흡연 예방문화 확산

서울교육청, 흡연예방 학생동아리 209개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 중심의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209개의 '건강·체험 학생동아리'의 활동을 12월20일까지 지원한다.

'건강·체험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은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자치 능력 향상을 통해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 '건강·체험 학생동아리' 활동은 흡연예방 및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체험중심 위주로 차별화하고, 학생들이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게 된다.

학교별 학생동아리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육수초(인형 연극 동아리) '금연 인형극' 제작 ▲삼육초(개척 대 동아리) '금연을 결심한 아빠와 함께 하는 이색스포츠 체험' ▲연서중(방송반) '흡연 예방 동영상 및 포토 드라마' 제작 ▲경인중(허리업-농구동아리) 건강 증진을 위한 '사제동행 산행' ▲선사고(건강서포터즈 동아리) 금연홍보를 위한 '금연 댄스' 공연 ▲광성고(니코스토퍼 동아리) 금연 실천을 위한 '도서읽기 및 토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특색 있게 진행된다.

이 밖에도 교내·외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 등을 병행 추진하여 학생 스스로 흡연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평생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시킬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건강·체험 학생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중심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과 체험 중심의 건강증진 및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건강·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잘못된 관광정보 바로 잡는다

서울시, 잘못된 외국어 표지판 바로 잡기 위한 캠페인

서울시는 서울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잘못된 외국어 표기 표지판을 바로잡아주세요'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민, 서울거주 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울시 내 곳곳의 잘못 표기된 다국어 안내표지판 발견 시 표지판 사진과 위치정보를 지정된 이메일(visitseoul@seoul.go.kr)로 신고하면 된다.

예컨대 버스정류소 명칭 '코엑스'가 'COEX'가 아니라 'Coax'로 표기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이다.

이번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표지판은 관광안내, 지하철, 버스정류소, 보행자, 문화재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서울 전역의 다국어 안내표지판(총 12종)으로 서울시는 신고된 내용을 '서울시외국어표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표기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 소관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자체 정비할 계획이다.

올바른 외국어 표기인지 여부는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사이트(http://dictionary.seoul.go.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신고내용과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내 '시민참여(공모전)' 및 '서울시외국어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외래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광안내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 현장점검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2주일간(9월 21일~10월 4일) 연세어학당 유학생이 주축이 된 영어·중국어·일어 현장점검단(80명)을 운영해 관광특구와 주요 관광지를 방문, 외국어가 병기되지 않은 표지판 등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발견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오제성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소와 같은 관광 인프라는 그 도시의 관광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말했다.

이어 "명동 거리연극이나 서울 도보 관광처럼 적극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다국어 안내표지판과 같은 기초관광환경 기반 정비를 통해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서울 관광명소를 찾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북유럽국가 교육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육선진국 덴마크·핀란드 방문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관찰하고 오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부터 26일까지 '교육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의 덴마크와 핀란드 두 나라의 교육기관과 교육현장을 방문해 교육불평등 해소, 평등 교육의 경쟁력 등의 주제로 관계자들과 폭넓게 대화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관찰·탐구한 뒤 돌아올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방문 기간에 ▲교육 평등에 관한 북유럽국가 및 국제파트너 학회 참석 ▲행복지수 세계 1위인 덴마크의 교사·학생들과 좌담회 개최 ▲교육 전문가들과 면담과 자료 수집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이번 북유럽 국가 방문의 목적은 이들 국가의 교육시스템과 교육 과정을 현장에서 관찰함을 통해 이들의 시행착오와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고 이들의 평등교육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마인드 등을 배워 서울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방문 기간 중 조희연 교육감은 '북유럽국가들의 교육을 통한 정의 학회'인 '저스테드'(JUSTED)의 초청으로 교육정책과 거버넌스, 학교 내 소수자 및 소외학생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역할 등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헬싱키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행복지수 세계 1위'로 불리는 덴마크와 최고의 교육선진국으로 불리는 핀란드의 학교 현장을 방문한다.

이들 나라에서 학교가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등을 탐구하기 위해 현지의 교사·학생들과 좌담회 등 대화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국가들이 지닌 교육제도의 강점과 운영방식 등을 열심히 배우고 탐구해 서울교육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유럽국가 교육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교육 교류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 도봉구·창평구 축제 한마당' 개최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중국 북경시 창평구와 국제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2일 '2016 도봉구·창평구 축제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손위 창평구 인민정부 상무부구장을 비롯한 대표단 6명과 공연단 38명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도봉구를 방문한다.

22일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도봉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2016 도봉구·창평구 축제한마당'에서는 창평구가 공식적으로 파견한 대표 공연단이 소림무술, 전통악기, 무용 등 다양한 공연을 도봉구민에게 제공한다.

도봉구는 퓨전국악 린, K-타이거즈 등을 공연해 양 도시 간 깊은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기념행사에 앞서 22일 손위 창평구 인민정부 상무부구장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예방해 공식 면담을 가진다. 양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 도시 개발, 관광문화 분야 등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그간 도봉구는 창평구와 지속적인 상호 대표단 방문을 통해 도로계획, 교육정책, 문화·관광 등 도봉구의 우수 정책 및 노하우를 공유해왔다.